



Winter 2020 Vol. 25

온누리교회 35주년과 TIM선교
35th Anniversary of Onnuri Church & TIM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28:19



표지사진

2019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발대식

CONTENTS

Special Issue		Global Issue	
온누리교회 35주년과 TIM선교	3	온누리 35주년 온라인선교간담회 &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본 바이러스의 공통점
두란노해외선교회! 다시 복음 앞으로!	29	코로나 시대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	
김홍주 목사	5	몽골 에쓰니교회 개척 사례 (발제)	
사랑하는 TIMer여러분, 위만 보고 달려갑시다!	13	이철희 선교사	
김창옥 전도사	8	35	코로나 시대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논찬)
코로나시대에도 복음이 유일한 답이다	11	38	코로나19가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
도육환 목사	TIM! Go in to the World!	Rory Macleod & David Taylor	
마크 최 목사	15	번역 권은영 선교사	
TIM, 살아있으면 선교하라!	19	Home Issue	
이재환 선교사	온누리교회와 TIM을 통한 촉매선교와 융합선교	44	진정한 회복과 감사를 경험하는 길은
정대서 장로	전영수 장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TIM선교사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에 복음이 울려퍼지길	21	장쏘냐 선교사	
신현승 장로	진정성이 있는 미디어로 영혼을 밝히는	47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
온누리교회와 TIM의 행복한 동행	24	황경훈 간사	
임훈 장로	그 땅의 느헤미야를 길러내는 일	50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 위한
이승배 장로	26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자	
	그 땅의 느헤미야를 길러내는 일	김미림 간사	

〈통권 제 25호〉 발행일 2020년 11월 26일 발행인 이재훈 편집장 한충희 편집인 기획동원팀 디자인 인권앤파트너스
발행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3층
전화 031-336-1042 웹사이트 www.tim.or.kr 이메일 tim@tim.or.kr

35th Anniversary of Onnuri Church & TIM

온누리교회 35주년과 TIM선교



SPECIAL ISSUE

두란노해외선교회! 다시 복음 앞으로! / 김홍주 본부장

사랑하는 TIMer여러분, 위만 보고 달려갑시다! / 김창옥 전도사

코로나시대에도 복음이 유일한 답이다 / 도육환 목사

TIM! Go in to the World! / 마크 쇠 목사

TIM, 살아있으면 선교하라! / 이재환 선교사

자기중심의 선교를 넘어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자 / 정대서 장로

온누리교회와 TIM을 통한 촉매선교와 융합선교 / 전영수 장로

TIM선교사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에 복음이 울려퍼지길 / 신현승 장로

온누리교회와 TIM의 행복한 동행 / 임훈 장로

그 땅의 느헤미야를 길러내는 일 / 이승배 장로



TIM! Again stand before the Gospel!

두란노해외선교회! 다시 복음 앞으로!

김홍주 목사 / 2000선교 본부장

선교적 비전을 기초로 시작된 온누리교회가 올 10월 창립 35주년을 맞이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35년동안 온 맘 다해 달려온 덕에,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고, 세대도 달라지는 법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도행전적 선교 영성을 다음세대에 전수하고, 구현해야 할 과업

이 놓여 있다. 특별히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온누리교회의 타문화선교 비전을 견인해 온 중심 선교단체이기에 그 책임과 역할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온누리교회 선교본부장으로서 TIM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TIM은 본래의 방향대로 타문화세계에서의 전방개척과 교회개척의 사명에 우선적으로 헌신해

가정방문 사역 모습



달라는 것이다. 지난 50여년동안 세계선교환경과 선교신학의 큰 변화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개념이 복음주의 교회안에 받아들여지면서 선교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온누리교회 내에도 다양한 선교기관과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로잔운동과 선교적 교회론의 영향으로 복음의 총체성,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지역적 책임의 중요성 등이 조명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이 점점 낮게 평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복음은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다. 모든 교회는 미전도지역에서의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무엇보다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복음의 최전방에서 영혼구원과 교회 개척을 위해 애쓰고 있는 TIM선교사들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목도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전도의 열정이 식어질 수 없다.

둘째, TIM이 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선교로 나아가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전략’이나 ‘계획’이란 용어를 인간적인 말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왠지 우리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듯하여 불편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신 분이시다.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란 용어는 대립적인 용어가 아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예수님의 계획도 전략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도 관문 도시에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주변 선교를 펼쳐 나가면서 전략적인 선교를 펼쳐 나갔다.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이제 200여년을 넘어서고 있다. 선교적 역사를 돌아보면 열매도 있었지만 실수와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선교 역사를부터 배우며 가장 성경적인 선교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선교적 목표를 분별

하며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가령 TIM이 우선권을 두고 사역해 온 교회개척사역은 단지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토착적이며 재생산하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선교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론에 정통해야 하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중단기 계획과 즉각적인 계획에 따라 자원과 사람을 동원하는 전략적 선교에 익숙해져야 한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유연성도 있어야 하고, 복음의 청자기로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가장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융합과 촉매 선교의 방향을 견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시작된 제2기 온누리선교의 특징은 융합과 촉매 선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점점 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고, 융합과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사는 융합과 연합의 능력이 있는 선교사이다.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래 선교의 가장 큰 숙제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촉매(catalyst)요, 조연자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현지인 교회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선교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들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감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촉매가 되는 역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제2기 온누리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주도하기 위해 본부뿐만 아니라 선교사 개개인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본질을 묵상하며 사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복음은 항상 새롭고 창의적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Beloved TIMers, let's run the race with eyes fixed on JESUS

사랑하는 TIMer 여러분, 위만 보고 달려갑시다!

김창옥 전도사 / 더멋진세상 사무총장

온누리교회는 지난 35년간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회 머릿들에 새겨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장)”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초창기에는 담임 목사의 사례비보다 선교사 후원금을 우선시 해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의 모습이다.

이 선교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설립된 두란노해 외선교회(TIM)는 선교의 최일선에 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세우는 기치를 높이 들고 복음의 불모지와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목숨을 걸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왔다. 하지만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금도 선교는 보내신 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달려가고 있다. 세상의 논리와 선교의 논리는 다르다.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지만 선교는 하

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하나님의 방법 곧 성경의 원리를 따라갈 때 선교의 열매도 맷하게 된다. 따라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원칙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먼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선교의 열매를 나의 열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그 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그 분 앞에서



영적 웃깃을 여미게 된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우리는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선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선교지는 언제나 영적 전쟁터이기에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 많다. 평안함보다는 불안한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낙심하게 된다. 임재 의식이 허려지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기쁨을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미래는 언제나 불투명하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선교지와 현지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상태이기에 선교는 더욱더 움츠리게 된다. 그

The mission field is always a spiritual battlefield, familiar with deficiency rather than sufficiency. However, lifting up our heads and fixing our eyes upon God, we realize God is with us and give our praises for the joy in Him.

선교지는 언제나 영적 전쟁터이기에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기쁨을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앞을 바라보면 주님이 새 길로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불안이 아닌 소망의 걸음으로 이어갈 수 있다. 내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되고 공동체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적 여정을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터치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그 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TIMer가 된다.

건강한 선교 사명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

선교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온누리교회와 TIM을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더 건강한 사명 공동체로 만들 책무가 있다.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숲의 시작은 작은 생명력을 지닌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를 생명력있는 씨앗이 될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다. 온누리교회와 TIM은 이 가치에 따라 한 사람의 선교사를 귀히 여기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로, 숲의 공기는 맑다. 나무들마다 언제나 맑은 공기를 뿐어대는데 나무는 서로 불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숲은 왕성할 수록 신선함은 더해진다. 우리도 서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사랑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내뿜을 때 TIMer들이 만나는 현지인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올 것이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하고 사랑할 때 변화의 속도도 빨라진다.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내뿜고 있는지 돌아보자.

셋째, 숲 속의 나무들은 위를 바라보고 자란다. 미국 동부지역 세코아야 국립공원에 있는 세코아야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높이가 84m나 된다. 그 이름은 ‘서먼 장군’이라 부른다. 이 나무들은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위만 바라보고 자란다. 우리도 이를 닮아가면 좋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자. 우리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결단할 때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질 것이다. 이 때 성령님을 통해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사랑하는 TIMer 여러분 위만 보고 달려갑시다.” 좋은 수종은 아름다운 숲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끄는 힘이 있다.

여름 아웃리치





Even during the Pandemic, the Gospel is the only answer

코로나시대에도 복음이 유일한 답이다

도육환 목사 /
TIM 이사, 양지온누리교회 담당

오랜만에 TIM 가족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지면으로나마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필자가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1992년은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첫 다섯 가정의 선교사를 허입하고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리고 보면 두란노해외선교회 28년의 역사는 곧 필자의 젊은 날의 기록이자 꿈과 사랑, 헌신의 자취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1994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TIM의 총무와 본부장으로 섬기는 기회가 있었다. 첫번째 본부를 섬겼던 1994년에는 총무와 간사 두 사람만 사무실을 지키며 소수의 선교사님들을 돋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다. 그 시기는 선교단체로서의 조직과 행정, 내규들을 다듬는 기간이었다.

이후 온누리교회 선교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TIM도 그 기능과 조직에서 전문성을 갖춰 오늘과 같은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TIM본부를 섬겼던 지난 1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지 못한 부족함과 함께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미안함이 교차한다. 한편 선교본부에서 선교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현장 선교사님들과 비전을 독려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은혜였는지 고백하게 된다. 이제는 그라운드를 떠나 응원석 한쪽에 자리를 잡고 현역 선수들의 고귀한 경기를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는 서포터즈가 되었다. 왕왕 사무실을 찾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기도해주는 것이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고국에 돌아오는 일도,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도, 선교지를 찾아 섬겨 주던 성도들의 발길도 끊어지게 되었다. 나라들마다 아우성이 있고, 수많은 약자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이상한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 같고, 어디에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진



현지 교회 예배중에

면모이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단 한번도 완전한 적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된 만큼 더욱 확실한 그 무엇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원불변의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이미 알고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코로나의 재앙은 인류의 마음이 낮아지고 더욱 복음의 필요에 절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재앙으로 마음이 낮아지고 깊주렸을 때 부흥의 시대가 따라왔다. 흑사병으로 온 유럽이 초토화된 이후에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왔고, 스페인독감과 양차 세계대전 어간에 전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코로나19 재앙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멈추고 본질을 붙들게 되는 열린 기회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선교전략이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산물이라

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도 세상에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한계가 없었다. 물론 비대면, 비접촉이 상식화되는 세상에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교지의 환경에 따라 보다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언제나 동일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도구는 시대마다 달라졌지만 그 본질, 복음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기본기가 답이다. 무엇보다 선교 일선에 선 우리가 명확하고 강력한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에 적합한 전략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TIMer에게 주어진 공통의 기본기이자 가장 TIM 다운 선교전략은 전방개척과 영혼구원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볼 들어야 한다. 건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고 신실한 제자와 리더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기본기이며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감당해야 할 일이다. 한편 이 본질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ST(Strategy Team)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한국 선교의 약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중장기적 선교 열매를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책임분담이 잘 이루어진 팀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열정과 사역 방법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열린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듯이 우리의 본질에 충실할 때 가장 선교적인 사역이 된다.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때일수록 더욱 기본기로 돌아갈 때 그것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유일한 답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복음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유일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더욱 말씀을 견고히 볼 들고 사명의 달을 질을 계속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자.

When we adhere to the basics, our ministry becomes missional. Whenever the more changes are desired, we need to turn to the essence, which will generate the power for the transformation.

우리의 본질에 충실할 때 가장 선교적인 사역이 된다.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때일수록 더욱 기본기로 돌아갈 때 그것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네팔 빠비뜨라 교회 교인들과





TIM! Go into the World!

마크 최 목사 /
TIM 미주지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당

“온누리교회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함께한 선교적 역량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온누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의 사역은 은혜이자 주님의 역사 하심이었다. 필자의 영적 스승이었던 故하용조 목사님은 맨하튼에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비전을 제시해주었고, 2005년에 뉴욕 IN2교회가 시작되었다. 뉴욕 IN2교회는 “마 11:28”의 말씀을 토대로 “Come IN2 Jesus, Go IN2 the World”의 기본 정신을 이어받아 열방의 민족들과 중남미 지역 그리고 지금은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기도와 관심,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 더 깊은 고민을 갖고 미주 비전교회와 동역하던 중 2006년,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 지부(TIM-A, TIM-America)가 세워졌다. 이에 IN2교회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면서도 온누리 중남미 사역지에 흘어진 TIMA 선교사들과 동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니카라과 CCA(김수선 선교사)가 학교 안에 필요한 게스트 하우스와 선교사 숙소를 짓는데에 IN2 온

누리가 함께 ‘IN2 하우스’를 건축하였고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 이후에는 TIMA와 협력해 단기팀을 보내 아이티 긴급구호활동과 현지 교회 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역의 토대가 되었다.

미주 온누리교회들은 Acts29과 Vision2000의 정신에 따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계속해서 꿈꿔왔다. 2018년, 중동 A국 TIM 선교사와 함께 영어 예배를 개척하고 그 예배를 통해 교회가 개척되며 그 해 여름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2가정을 중동 A국으로 파송하게 되었다. 그 후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미주 비전교회는 청년 단기 선교사(MB : Mission Builder)들을 지속적으로 파송하며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세워진 예배는 A국 자원들 뿐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복음의 접촉점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A국 사역을 통해 영어를 접촉점으로 현지인과 교제가 이뤄지는 이 사역의 가능성을 확인한 우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가 어려운 만큼 온라

인상에서 영어 학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현지 영혼들을 비전교회 성도들이 일대일로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의 연결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0년 새로운 상황과 도전 앞에 TIM이 나아갈 6 가지 선교적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TIMA와 미주비전교회는 이에 맞춰서 함께하려고 한다. 먼저 선교지에 적용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사역들을 체계화하여 노하우를 개발할 것이다. 접촉과 복음 전도가 우선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지금처럼 일대일 영어수업과 관계맺기를 통해서 미주 온누리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아웃리치를 방문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온라인 상으로 접촉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과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자양육과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중남미 교회들의 경우 미주CGN-TV 및 라틴두란노와 함께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대일과 Q.T.를 통해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 중심 사역의 기초영성을 기른 후 BEE를 비롯한 여러 성경적 훈련과 아버지학교와 같은 가정사역을 접목시켜서 건강한 가정과 소그룹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중남미 지역에는 이미 온누리 교회와 TIM선교사들이 20년이 넘도록 사역하며 양성된 귀중한 자원들이 많다. 라틴두란노가 ‘생명의 삶’과 ‘일대일’로 연결한 중남미 협력교회들과의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이제는 이 귀한 자원들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선교를 위한 동역을 이뤄야 가야할 것이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미주 온누리비전교회들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중남미 교회들이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 중남미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동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뤄지기를 꿈꾸어본다.

TIMA 아이티 사역





TIM, if you are alive, live the mission of God

TIM, 살아있으면 선교하라!

이재환 선교사 /
컴미션(Come Mission) 미주지부 대표

온누리와 함께 한지 35년이 흘렀다. 필자에게는 이 세월이 흘러감이 나무가 자라 숲을 만들듯이 온누리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맛보는 세월이었다. 하용조 목사님의 하늘을 향한 선교적 비전과 목회 비전이 풍성한 숲을 이뤄 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대화를 꺼리는 세대로 변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국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교회의 성역을 침범해 핍박을 가하거나 권력으로 통치하려는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교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확신 한다. 세상의 눈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선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큰 전략임을 알게 된다. 그 속

에 숨어계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깨달을 때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온누리 35주년과 TIM의 태동을 바라보며…

온누리가 선교와 함께 시작하면서 TIM이 선교의 전문 기관으로 태동하게 된 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다. 온누리교회 안에 있음으로 TIM은 선교 단체로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겠지만 교회 밖의 단체들과 협력함으로 인해 매우 효과적인 사역을 해 왔음에 감사 드린다.

선교는 영원한 진행형이 아니다. 역사적 선교는 끝이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로 선교가 넘어갈 것이다(롬 11:25). 즉, 이스라엘은 현재 미전도 종족이지만 이방인의 선교가 완성된 후에는 이스라엘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일하실 것이다.

선교의 완성은 부흥으로 이뤄질 것이다. 부흥은 동시에 재난과 핍박, 환난과 함께 올 것이다. 코로나는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 이지만 선교의 미래를 말해주는 경고와 도전일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역병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무릎 선교사가 되어 ‘희망의 사람들’을 만날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에 붙잡힌 성경 속 인물들처럼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이뤄야 할 것이다.

온누리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TIM을 통한 선교의 완성인 것이다. 35주년은 역사적 시점과 동시에 온누리 선교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IM은 이제 영적 혁명을 이뤄야 할 핵심적 기관으로서 제4차 산업 혁명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선교의 완성을 위해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 동력을 위한 골방 기도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과감한 헌신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부흥은 재난과 함께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선교사의 숫자도 줄고, 선교비 동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 미래의 선교는 선교사를 더 많이 보냄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닌 “Hit and Run”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는 기드온의 전쟁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전쟁에 참여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300명의 용사만 남게 하고 모두 돌려보냈던 것처럼 선교사의 숫자가 줄거나, 선교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으면 좋겠다. 영상과 전파를 통해 복음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선교의 대부부흥이 올 것을 기대해야 한다(행 2:17~21).

따라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큰 환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는 미래의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긍휼과 의료 사역 등의 선한 사업도 염두 해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온누리교회의 미래 선교를 이뤄갈 TIM의 역할을 기대한다. “살아있으면 선교하라”는 총력 선교의 길을 찾아 연구하고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선교의 소명은 바로 사명에 있다.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듯이 앞으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 갈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TIM, as a key organization for achieving the spiritual revolution, should mobilize the instrum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complete the mission.

TIM은 이제 영적 혁명을 이뤄야 할 핵심적 기관으로서 제4차 산업 혁명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선교의 완성을 위해 동원해야 할 것이다.



Move from self-centered to God-centered mission

자기중심의 선교를 넘어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자

정대서 장로 / 2000선교 실행위원회

필자는 최근에 자녀들과 후배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총정리하여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을 냈다.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책을 저술했다. 죄성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 것이므로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믿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선교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자기중심성에서 파생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중심의 선교

이기주의

가장 많이 인식되는 자기중심성은 이기주의이다.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기

주의는 타락한 인간의 중심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벗어던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 있든 후방에서 지원사역을 하든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속한 곳에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조차도 자녀들의 진학과 자신의 미래, 직분 등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독선, 편견, 자문화 중심주의

선교사의 소명은 선교지에 복음의 불을 붙여 그 불이 현지인들 가운데에 더 크게 일어나도록 돋는 것이다. 이를 손창남 선교사님은 “당신의 선교 아이디어보다도 ‘부채’ 가져가기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했다. 작은 불이라도 현지에 붙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온누리 교회를 옮겨 심는 것도, 내 생각을 심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온전한 복음이 현지 문화에 접목되어 그들의 불이 되어 타오르는 꿈을 꾸어야 할 것이다. 여

기서 주의할 것은 독선의 문제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확증편향’을 넘어서 현지 문화와 동역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나가야 한다. 또한 ‘만인제사장’ 원칙을 깊이 몸에 배게 함으로써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여러 사람이 서로 옳다고 맞장구치는 ‘집단사고’로 인해 참된 생각이 묵살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다.

교만

어느 선교사님은 “내가 선교하려고 선교지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하나님께 선교를 당하고 있더라”라는 고백을 했다. 우리는 배우고 아는 만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정직하고 용기 있게 인정하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좀 더 천국 백성 다운 성품을 익혀 가게 도 하신다고 믿는다. 우간다의 성공회 주교인 ‘나링 기예’는 “당신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려고 선교사들을 보낸다면 우선 제자다운 제자들을 보내주시오.”라고 했다. 제자 답지 못한 선교사들이 모이면 “누가 크나” 하는 다툼만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좀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자.

권력, 자기주도성

선교사들 중에는 간혹 ‘섬기러 갔다가 군림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한다. 자기의 생각과 시간, 속도대로 사역이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고 앞서 나가실 때에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권리주장

선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대접받을 때는 마음이 좋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헌신한 자들의 보상은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의 보상이고, 둘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하늘에

양육 중 말씀 묵상 시간





지역교회 아이들과

쌓인 보화가 영원한 보상이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바라는 마음과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

무관심

선교사역에 힘들고 지치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에 빠지기도 쉽다. 그러나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묵상하고 공감하며,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해결방안 :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메시아라는 영웅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나, 유희에 집착하는 힌두교도, 불교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두 번 오신다는 복음은 충격적이다. 창조-타락-구원-심판

의 세계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온전한 복음 (whole gospel)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확증편향에 빠진 타 종교인들과 이단들에게 최대의 도전이 된다.

계시된 말씀으로 바르게 묵상하기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생기면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은혜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계적인 Q.T.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파묻혀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

자기성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이 보이지 않으며 사역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을 성찰할 때에 우리는 His way, 즉 겸손, 정직, 그

리고 겸소한 삶을 살 수 있다. 진리 위에 서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실천할 때에만 현지인들의 눈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영적 체험

‘Hudson Taylor’가 말한 FAITH MISSION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에서 Ralph Winter박사는 “새 마계도냐”라는 제목으로 ‘전방개척선교’, 즉 미전도종족 선교와 최대동질집단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아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세계 각지의 죄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통찰을 얻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역에 제한이 생기고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간절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역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기록된 책들은 선지서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 전체(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된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는 사역은 의미가 없고 지치기도 쉽다.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연합하며,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방에서는 타국의 선교사들과 편견 없이 협력하고 후방에서는 Whole Church, Missional Church가 되자. 하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선교사)는 코치이고 성도(현지인)들은 선수”이다. 이들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변화될 때 현지 교회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영적전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리더를 공격하기, 분열시키기, 연약한 곳을 집중 공격하기 등이 그렇다.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것이 용서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우상숭배의 죄성에서 온전히 독립된 우리가 만인제사장들이며 이러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노력하며 반발자국 떨어져서 바짝 따라가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Only when we firmly stand on the truth and practice the life of love, forgiveness and grace, local people will see the beauty of God in us.

진리 위에 서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실천할 때에만 현지인들의 눈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Catalyst Missions & Convergence Mission through Onnuri Church & TIM

온누리교회와 TIM을 통한 촉매선교와 융합선교

전영수 장로 /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SWIM) 대표장로

온누리교회의 선교 방향은 촉매선교와 융합선교이다. 필자는 난민선교를 추진해나간 경험이 있어 이 두 가지 선교의 방향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2000선교본부의 융합선교팀에서는 2016년 말부터 난민선교를 추진해나가면서 촉매선교와 융합선교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촉매선교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선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교사가 난민 센터를 세우고, 전도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사역하도록 했지만 이것을 추진하려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사이 난민 사역의 특성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현지 난민 교회와 협력 선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 때 이 지역에서 난민 교회와 교제를 이어온 손충성 선교사의 도움으로 지금의 난민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 지금까지도 협력하며 촉매선교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양측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이었다. 우리는 풍부한 융합선교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난민 교회에 나눠줄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난민들에게 아랍어로 직접 전도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반면 난민 교회는 주위의 난민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랐고, 목양과 양육의 역량도 부족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돋고 서로의 장점을 나누기 위해 MOU를 체결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갔다.

난민 교회는 첫째로 가정 사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난민 가정내에는 가정 폭력이 많았고, 여성들의 자아정체성이 약해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 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학교를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고, 이 가정 사역을 복음과의 관계성의 모델로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 아랍어 일대일 사역과 Q.T. 사역이다. 일대 일을 처음 접한 그들에게 일대일을 보급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다. 지금껏 일대일 사역의 교재처럼 오직 말씀으로 된 양육 교재는 보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일대일 양육 사역을 보급하면서 한계점도 동시에 보게 되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관으로 가득찬 개종자나 구도자에게는 이 일대일이 잘 이해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성도 양육용으로는 일대일 양육 책을 사용하고, 개종자나 구도자를 양육할 땐 바로 <Come Follow Me>(2014,Tim Green)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Q.T. 역시 난민 교회에서 상당히 환영을 받았다. 난민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읽는 Q.T.보다는 듣는 Q.T.”로 접근한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Q.T. 보급을 촉진시키려면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유튜브를 활용한 Q.T.를 병행 하면 좋겠다.

난민 교회는 동포 난민을 전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인들에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열매로 난민 교회 성인 성도가 114명이나 성장했다. 요즘은 코로나19의 제재로 전도 활동은 위축되었지만 이들은 Facebook을 활용한 온라인 전도에 힘을 쓸어 최근에는 15명을 영접시키기도 했다.

난민교회의 또 다른 기대주는 제자훈련을 통한 재생산이다. 그들은 ‘Peter’s boat’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6개월 간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면서 1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수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생산하여 사용하시리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에서 집합적으로 양육하였다면 지금은 온누리교회 순 구조와 유사하게 개편하면서 순 양육에 많은 역량을 쏟아보려고 한다. 이 순 양육 컨텐츠는 온라인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순장의 핸드폰과 그 가정의 TV를 연결해 모든 순원이 같은 화면을 공유하며 순 모임을 진행하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촉매선교와 융합선교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난민 선교의 모델을 완성하는데에는 좀더 시험해 봐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 자산은 충분히 선교지에서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촉매선교도 현지인들을 앞세워 우리가 뒤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모델을 찾은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촉매선교를 통하여 현지 교회가 목양하는데 어려운 점을 온누리 융합선교 자산으로 채워주고, 이들을 통해 현지에서 전도하고 재생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그들의 높은 전도의 역량으로 채운다면 이 둘의 협력은 상당히 큰 시너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Every Corner where TIMers reach, there will be the Gospel sound

TIM선교사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에 복음이 울려퍼지길

신현승 장로 /
TIM 이사, 2000선교본부 실행위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드세하는 것 같고 죄로 인해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수록 더욱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임을 실감하게 된다. 두란노해 외선교회(TIM)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개척과 전방 개척 선교를 핵심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선교를 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사역들을 축복 해 주셨고, 이미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진 곳에 있고 불모지였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한 것 같이 선교지에 뿌려진 씨앗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들로 자라나리라 믿는다.

어린이 주일학교





학교 행사에서 합창하는 선생님들

코로나 이후 선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선교지에서의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교의 뜻자리와 같은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일 것이다. 물질만능과 세속화란 파도 속에 유럽과 미국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시차만 있을 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이러한 우려 속에 미래 교회와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KGM-LF(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 세미나에서 “대형 교회의 선교 책무”란 주제가 다뤄진 적이 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책무는 국내외적으로 건강한 선교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섬기는 일일 것이다. TIM 또한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와 함께 설립 초기부터 한 몸이 되어 선교를 위해 달려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TIM에게 주신 고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 이후의 선교란

전통적인 선교 방법이 흔들리고 있다. 복음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된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tool)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하는 문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교사가 파송되고 한 지역에 머물며 선교 사역을 하는 공간적 의미가 강조되는 ‘전통적 선교 방식’도 유지되어야 한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함께하는 현장의 사역이 복음 전달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선교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인해 아무리 비대면 사회가 오더라도 인터넷이 없어 선교사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곳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재봉 교수의 <포노 사피엔스> 책에 따르면 불과 10년 전만해도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정의했다. 이 인구는 약 36억명이며

이미 문명과 시장 생태계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으로, 젊은이들의 이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TIM에서도 비대면 화상 미팅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환경 변화와 TIM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는 시의 적절한 발 빠른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의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TIM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TIM의 사역의 발전을 기대하며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끊임없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아 TIM이 해야 할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다. TIM은 남의 터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선교의 영역을 찾아내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돌파하는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도한다.

둘째, TIM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에 촉매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현지 교단, 교회, 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했을 때이다.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역할을 분담하거나 힘을 합치게 된다면 사역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비대면 선교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선교의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디지털 문명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통에 막힘이 없고 창의적인 2~30대 젊은 세대인 대학청년부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선교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능동적인 선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삶을 드려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늘나라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 본향임을 다시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게 된다. 이것은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하는 온누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누리교회와 TIM이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We are captivated by the delights of the world to the eyes and forget the heaven. When we meet missionaries journeying towards heaven as pilgrims, we are reminded that we live here on earth temporarily and will live in eternity in heaven.

우리가 이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늘나라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 본향임을 다시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게 된다.



Happy Partnership between Onnuri Church & TIM

온누리교회와 TIM의 행복한 통행

임훈 장로 /
온누리교회 선교분과위원장

온누리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헌신해온 점이다. 사도 바울이 온누리교회에서 신을 보냈다면 재정적 지원만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이 선교임을 선언하였을 것이다. 공동체와 순에 이르기까지 온누리교회는 선교와 선교사의 연결점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선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면하게 하였다.

필자는 천주교에서 20년, 개척교회에서 20년을 다녔다. 20여년 전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 온누리교인이 된 후 공동체 선교 사역자로 섬기며 터키로 첫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이스탄불의 웅장한 야야 소피아 성당은 당시의 예배 스케일과 화려함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이어 방문한 터키 이즈밀 지역에서는 반지하에서 현지인들이 숨죽여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쿠르드인들로서 삶이 녹록지 못한 이들이었다. 이 엇갈리는 듯한 이 두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광대하심에 터질 듯한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아웃리치 후에 현지의 경험

을 통해 공동체 지체들과 이슬람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후에 ‘이슬람선교학교’의 시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선교부서나 선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언어와 문화 등의 전문 영역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선교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온누리교회 머릿돌에 새겨진 “마 28:19-20” 말씀의 부르심과 초심이며 온누리 교회의 역사와 정체성이 되었다.

온누리 선교를 돌아보면 지난 10년 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전도 종족 선교와 교회 개척에 연장선에 있는 융합선교와 팀선교, 촉매선교, 이주민 난민 선교 등은 중요한 선교적 개념이며 과거와 달리 선교본부를 비롯하여 5대 선교기관, 아버지학교, CMN, CGN TV 등의 여러 기관이 모여 소통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융합선교의 기반을 닦아왔다.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선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팬데믹은 외형적 선교의 성과보다 보이지 않지만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 삼고 살아있는 역동적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난한 일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난침례교단 선교부는 서부 아프리카의 대학과 병원, 교회를 지었지만 약 40년 간의 사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도자를 거의 배출해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교전략을 선교부는 전면 수정하고야 말았다.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도 커다란 교회 건물만이 서있었고 어려움이 닥치자 사상누각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번 온누리교회 35주년 온라인 선교간담회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였다.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라는 발표는 울림이 있는 적절한 비유였다. 또한 간담회 마지막 날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한 전도 방법은 매우 신선했고 온라인 사역이 단순한 대안을 넘어 훌륭한 선교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자원을 활용해 융합 선교도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형태의 은사와 현신들이 광맥처럼 채굴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IT 전문가들이 내년 초에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자유롭게 만나 소통하는 형태이다. 즉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활발한 유통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은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듯이, 예수 영화는 20세기 복음 전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지난 8월 코엑스에서 열린 한 전시에 참여했다. “Seoul VR·AR Conference 2020”에서 미래 선교 방법을 상상해 보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있듯 현실감있게 경험하는 컨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전 세계 흩어진 많은 교회가 도시화로 인해 대형교회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교회들을 동력화 하는 일들은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선교지에 온누리교회와 같은 현지화된 선교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는 연 2회 ‘비타민 C’란 행사를 주최한다. 이는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과 선교, 일대일, 차세대 사역 등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음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온누리교회는 나누고 협력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TIM 선교사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시기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선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TIMer들과 동행하기를 기도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TIM의 선교적 동행이 더욱 알차고 즐겁게 복된 길이 되기를 소망한다.



Raising up Nehemiahs of the Land

그 땅의 느헤미야를 길러내는 일

이승배 장로 / ECC이사, 2000선교본부

현대 선교는 18세기 윌리암 캐리로부터 시작된 해안선교시대, 19세기 허드슨 테일러로 대표되는 내지선교지대, 그리고 20세기 신학자 랠프 원터 등 의 미전도종족, 전방개척선교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다른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로마제국을 비롯한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주

요 종교들의 영향력이 좌우되었다. 제국이 확장될 때는 흑사병, 홍역, 감염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새로운 사회로 전환되는 보이지 않는 촉매역할을 했다. 부족한 과학 지식으로 정체를 알 수 없었던 혹독한 감염질병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동체적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고 종국에는 제국과 종교권력을 무너뜨리고 시

베트남 G센터 수업 모습



민사회로의 길을 열었다. 19세기말 우리나라로 들어온 많은 의사 출신 선교사들은 당시 콜레라로 고통받던 조선사회에 방역 표준을 만들어 주었다. 선교사들은 많은 조선의 청년들의 멘토가 되었으며, 1918년 말 발생한 스페인독감(무오독감)으로 14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선의 청년들과 민족을 구하며 진리의 깃발을 들었다.

온누리교회는 개척초기부터 전방개척지역 선교사를 허입했다. 공동체가 미전도종족을 입양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 아웃리치 등으로 현장을 함께 섬기면서 많은 선교지에서 자전, 자치, 자립하는 토착화된 교회모델을 세워 나가고 있다. 온누리교회 개척 당시 선교사 입국 금지 국가가 약 30여개국이었던 반면, 지금은 약 100여개국으로 늘면서 전통적인 선교사 신분으로는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에는 C국, I국 선교지로부터 많은 온누리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선교지의 봉쇄령으로 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2000선교본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의 물결인 초연결(Hyper-Connected) 시대의 선교를 준비하며, 온누리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모든 현장 및 국내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온누리 35주년 온라인 선교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누리선교의 현재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연합과 협력’, ‘교회개척과 제자 양육’, 그리고 ‘이주민 선교와 난민 선교’를 주제로 선교사들의 발제와 토론의 장이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선교환경변화와 대응은 첫째, 온라인과 디지털사역의 일상화, 둘째,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중심 사역의 확대, 셋째, 현지사역자 중심으로의 이양 촉진, 넷째 협력선교 및 융합선교의 강화, 다섯째, 긴급구호 및 개발사역의 필요성, 여섯째, 난민 및 이주민사역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다. 모두 코로나19이후 필요한 선교의 사역적인 전환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셨을까?”

다니엘서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예언과 같이 감염질병도 더욱 빠른 확산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온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사역이 가능한 기술적 바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이동이 제한되고 모든 예배가 금지된 대부분의 선교 현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도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및 식량구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프타운 서약>(2016, 로잔운동) ‘하나님의 선교’편에는 “하나님은 선교의 모든 차원을 총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실천하도록 그분의 교회를 부르셨으며 우리는 이에 헌신한다.”라고 호소한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총체적 선교의 바탕이 되는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집중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방인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헌신적인 참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라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에 질병 방역과 교육 보급이라는 직간접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수많은 한국사회의 느헤미야들을 길러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움 가운데 열린 새로운 선교적 기회에 교회 공동체의 자원이 그 땅의 느헤미야들을 길러내는 장기적인 일로 헌신하기를 바란다.

Imagining a post-virus Landscape and its effect on missions

온누리 35주년 온라인선교간담회

코로나-19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 (2일차) :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Covid-19 and a search for Historical Parallels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본 바이러스의 공통점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 몽골 에쓰니교회 개척 사례 (발제) / 이철희 선교사

코로나 시대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논찬) / 손충성 선교사

코로나19가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 / Rory Macleod & David Taylor, 번역 권은영 선교사



온누리 35주년 온라인선교간담회
코로나-19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 (2일차) :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Church planting & Discipleship during the pandemic : case study of Ezenii Church in Mongolia 코로나 시대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 몽골 에쓰니교회 개척 사례 (발제)

발제자 이철희 선교사 / 몽골

몽골 TIM사역

몽골 현대 선교 역사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으며 TIM몽골 선교는 24년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온누리교회와 TIM선교사가 진행해 온 사역들은 교육(대학교, 초, 중, 고등 학교), 의료, NGO, 교회 사역 등 다양하다. 온누리교회와 TIM 선교사가 몽골 선교에 기여한 공헌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역의 분야뿐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수준이었다고 자부한다.

현재 몽골 TIM선교사는 11유닛의 한국인선교사와 5유닛의 몽골현지인 선교사로 총16유닛이 3개의 전략사역팀으로 사역하고 있다. 각ST(Strategy Team : 전략적사역팀)의 사역과 선교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역 소개

바나바 사역팀

온누리교회의 핵심 사역인 일대일과 큐티,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중심으로 제자 양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인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고,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제자양육을 진행하며, 성경번역사역도 진행중이다. 선교사는 필요시 조언과 MPC(Mission Project Coordinator)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다.

아가페 사역팀

아가페 사역팀은 아가페 기독 병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동진료, 어린이 사역, 방과후 사역, 교회 사역, 몽골 목회자 가정 케어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총체적 선교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히 최근에 시작한 이동진료 사역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복음이 취약한 시골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교회개척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 몽골과 브리야트선교 사역팀(MaB, Mission Mongolia and Buriyat Missioin)
MaB팀의 사역으로는 브리야트족, 교회개척, 성경번역, 신학교, BEE, NGO 등 의 사역이 있다. 이 팀은 주로 수도와 멀리 떨어진 잡황, 도르놋드, 다르항 같은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 사역과 더불어 도르놋드에서는 브리야트족 사역, 다르항에서는 다르항 신학교와 BEE(신학연장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에서는 NGO사역과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다.

사역의 특징

전방개척선교

수도인 울란바타르와 더불어 도르놋드, 잡황, 다르항 등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전무하거나 소수였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미전도종족 선교

온누리교회가 1996년에 몽골 브리야트족을 입양함으로써 미전도종족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여러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노력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개척되고 현지인사역자들이 세워졌다. 그 결과 현재 4개 교회 모두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 졌으며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현지인들과 번역팀을 구성하여 브리야트 성경번역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조만간에 브리야트어 성경책이 출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몽골 내의 브리야트족 선교 활동에 집중하였다면 지역을 넓혀 이제는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내의 브리야트족 선교 활동을 위해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준비하고 있다.

제자양육과 교회개척에 초점을 맞춘 사역

몽골 TIM선교사들은 NGO, 비지니스, 학교, 병원, 구제, 교도소, 종독회복, 아버지학교, 찬양 등등 많고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시도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방향성과 목표가 명확하였다. 그것은 곧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가 양육되며 교회가 개척 되는 것이었다.

현지인 중심의 빠른 전환

대부분의 사역이 선교사 주도적으로 개척되고 시작되었으나 비교적 이를 시기에 현지인에게 이양이 이뤄졌다. TIM선교사들이 개척하여 동역하고 있는 15개의 교회 중에 개척 단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제외한 14개의 모든 교회가 현지인에게 이양이 되어 현지인이 담임하고 있다.

에쓰니 교회개척 및 현황

교회개척 배경

2007년 5월 첫 공 예배를 드릴 시기 몽골의 복음화율은 1.5% 교회개척사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였다. 몽골의 제2도시 다르항은 지역 복음화와 러시아 브리야트공화국 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10년의 선교 기간을 통해 현지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3개 교회 개척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철희/원은복선교사는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선교사는 교회 개척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 또한 교회 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선교사주도에서 현지인 주도로 전환 과정

에쓰니교회는 선교사 주도형으로 개척되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선교사가 새신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할 경우 처음에는 더디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 선교사의 목회 철학(온누리 목회철학)을 공유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에쓰니교회는 초기부터 소그룹 모임을 강조했다. 성도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는 것을 제자양육의 목표로 삼았다.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말씀, 기도, 전도를 생활화하는 제자로 성장하였다.

에쓰니교회는 선교사가 개척한 지4년 후에 현지인에게 이양되었다. 선교사는 현지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목양을 감당하기에는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목양을 현지인 소그룹 리더들이 감당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선교사는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현지인 주도 사역 현황

에쓰니교회는 초기부터 재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6년 후 B사역자가 에쓰니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5개 교회가 추가로 개척되면서, 에쓰니교회를 통해서 총10개 교회가 개척되었다. (현재는 통폐합을 통해 6개 교회가 남아 있음)

에쓰니교회는 개척부터 “현지인 사역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 “교회를 선교사가 지어 주지 않는다”는 두 가지 원칙을 기초한 토착교회를 목표로 했다. 아직 완전한 자립은 아니지만, 에쓰니 교회와 분립된 교회 모두 현재 현지인들 스스로 자전, 자치,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세워진 각 현지인 사역자들은 온누리교회의 사역과 목회철학 등을 계승하고, 일부 온누리교회 선교사훈련을 이수하고, 선교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사역의 변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몽골에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다. 예배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철저히 금지되었다.

처음에는 에쓰니교회도 Facebook을 활용하여 주일 예배를 생중계하는 정도였다. 그 후 이 방법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Facebook의 활용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갔다. Facebook 영상을 활용해서 성경통독과 큐티나눔을 하고 있고 기타 개인 상담, 일대일 양육, 기도모임 등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한 사역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전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SNS를 활용한 사역은 몽골 선교의 새로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은 수도를 제외하고는 적은 인구가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 아직도 몽골인의 20% 정도는 유목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들에게 SNS를 활용해서 전도와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대중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중이 모이는 주일 대예배, 성령 집회, 금요기도집회, 성경공부 등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이런 중심 사역들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럼에도 교회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소그룹 DNA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중 모임은 할 수 없었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던 소그룹 순모임은 지속할 수 있었다.

코로나의 전염 위험으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교회에는 오기를 꺼려하지만 찾아가는 손님은 환영하는 몽골의 문화 덕분에 가정에서 소수가 하는 이런 사역의 형태는 아주 효과적인 편이다.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TIM선교사가 개척하여 현재까지 함께 동역하고 있는 13개의 교회 중 한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현지인들에게 이양이 되어 자전, 자치, 자립을 하고 있다. 다르항신학교 사역도 거의 모두 현지인 교직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회개척과 와이미션을 비롯한 향후 몽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역들은 처음부터 선교사 주도가 아닌 현지인 주도로 시작하고자 하며 선교사는 멘토와 MPC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몽골 TIM사역은 개인 중심 사역에서 점차적으로 공동체 중심 사역으로 이동해 왔다. 초기에는 개인 중심 사역을 진행했으나 ST가 구성된 이후 팀 사역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타단체와 교회, 교단 등과의 협력 사역도 개인 중심의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ST차원의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TIM차원에서 몽골 단체나 교회들과 협력 사역을 진행할 경우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며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의 필요성

현재 몽골에서는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와 아가페기독병원이 선교사들의 비자와 사역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을 통해 여러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TIM 선교사가 지방에 진출해서 사역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직접적인 전도와 제자양육 등의 선교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은 플랫폼 구축 사역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결론

전도와 제자양육은 선교의 핵심 사역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 “보내든지, 가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로 대표되는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들이 몽골에 많이 세워지길 소망한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사역에 쉼표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 선교를 열어 가라는 주님의 뜻이라 믿는다.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지혜와 개척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한다.



온누리 35주년 온라인선교간담회
코로나-19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 (2일차) :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Church planting & Discipleship during the pandemic

코로나 시대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논찬)

손충성 선교사 / 터키

지금까지 선교지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변화를 거쳐왔다. 10여 년 전부터 지금 까지 선교사들은 사회적인 핍박과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추방의 어려움을 인내 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5년 전부터는 지금까지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간, 민족간, 종교간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여러 나라와 도시로 흩어지면서 난민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고민 가운데 있다. 코로나의 강력한 전염력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나 모임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렸다. 사역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빠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번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관련한 발표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몽골의 교회 개척과 제자양육 그리고 이양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에게 이양해 나가는 몽골 TIM 사역팀의 발표를 들으며 도전과 격려가 되었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나눈 코로나와 이후의 사역 방향은 많은 사역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몇가지를 강조 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변화하는 선교현장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짐을 경험했다. 그 당시 예루살렘교회는 핍박이나 흩어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략적 흩어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흩어짐을 당했을 것이다. 성령님의 의도적인 흩으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터키의 교회도 그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도 늘고, 다민족 교회가 되었고, 점점 더 큰 장소를 구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 현재 1개였던 교회가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모임을 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관계, 연령의 6개의 셀교회로 흩어지게 되었다. 설교와 찬양을 음성파일로 해서 예배를 지원하고, 영상으로 성경공부, 인터넷 큐티나눔 등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모임으로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 차례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엔 가정교회, 셀교회등으로 부르던 교회들이 지금은 코로나 교회, 마스크 교회, 소수정예 교회라고 불리워 질 것이다.

다수 대상의 사역이 소수로 집중

코로나로 인해 다수가 모이던 모임에서, 작은 모임과 가정교회로 모이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지인 리더가 세워지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적인 경험과 적용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소수의 사람들과 오히려 집중적이고 주중에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이들이 사역자들에게서 받은 양육, 훈련을 주중에 가족, 교회 성도들, 친구나 이웃에게 적용하고 실천해봄으로써 사역자로 훈련 받고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인터넷 줌, 미트 웃츠앱 페이스북을 통한 모임이었다.

큰 장소에서 작은 장소로

소규모 센터, 집, 카페와 식당 활용이 효율적이 되었다. 마스크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렵게 됨으로, 작은 가정이나 센터, 방역을 잘 실천하는 공공장소에서 소수가 모이는 것이 유용하게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연합

선교지에서 단체와 교회를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콘텐츠 공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예배 찬양녹음(10분 3곡정도), 설교녹음(15-18분)해서 보내주고 있다. 간증녹음파일, 사진등을 많은 교회와 전도용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몽골과 같이 현지인과 사역자들의 활발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이 빠르게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TIM이 사역지 교회들과의 연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역에 집중하면서, 아직은 적지만 예배(특송과 설교)나 주중에는 기도회나, 주제별 세미나, 특별 프로그램(성경퀴즈대회 등)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전도와 양육

인터넷은 요즘 사람들에게 필수가 되었다. 전도가 이전에는 열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집이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집안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 중 관심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통신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14개의 코스를 수료한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는데, 2018년에 1만900명, 2019년 2만명,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난 6월까지 7,500권이 배부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시대에 온라인 전도, 온라인 양육이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본 바이러스의 공통점

Imagining a post-virus Landscape and its effect on missions

코로나19가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

Rory Macleod & David Taylor / 로잔 글로벌 분석
번역 권은영 선교사 / TIM, OGP 파견

위 글은 로잔 글로벌 분석에서 작성한 것으로, 온누리교회 권은영(TIM, OGP 파견) 선교사가 번역하였다. 이 글의 전문은 <https://www.lausanne.org/content/lga/2020-09/covid-19-and-a-search-for-historical-parallels>에서 읽을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았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거의 사건들 간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사건을 살펴봤을 때 역학적인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폭넓은 전망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오히려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어났던 제1,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교해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8월, 코로나19에 견줄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1945년에 일어난 경제와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는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추이를 예상하게 해 준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파괴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의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1914년에도 “일시적이며 이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 예측했다

코로나19와 1914년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사건 모두 글로벌 경제 성장과 세계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점에 갑자기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은 국제화된 세계가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건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부양할 자녀가 있는 근로 연령인구인 젊은 세대인 반면, 가장 타격을 적게 받은 이들은 저축한 재산이 많고 연금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는 노인층이었다는 사실도 두 사건에 동일한 점으로 작용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을 장악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과세를 늘렸고, 가정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시민의 자유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현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914년도와 2020년도의 두 사건 모두 “시민들은 이 시기는 일시적이며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점이다. 1914년 당시 전쟁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2020년도 백신이 없이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더라도 전염병이 재발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사실이다.

1945년, 기후변화를 통한 사회적 변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빚어진 ‘사회적 민주주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반세기 동안 사회, 경제적인 조치로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갔다. 이 시기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예가 기후변화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단순히 기후변화의 문제해결을 위해 탄소를 줄이는 것을 이유로 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

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행동을 제약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논쟁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변한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1945년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외국인 투자가 매각되었으며 수백만 명이 실향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서비스와 완전 고용을 갖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언뜻 보기에도 이것은 주의하여 분별해 들었어야 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사실이 두드러졌는데 첫째는 정부가 큰 변화에 대해 강제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필요로 하고 원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긴급 상황이 종료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결과에 손해를 입고 살 가능성이 많은 청년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청년들이야말로 봉쇄조치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 이들은 직업이 불안정하며, 저축액이 적고,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 청년들은 서비스직과 같은 임시 고용이 반복되는 경제 분야에서 불균형적으로 일한다. 팬데믹 이후에 이들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당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은 ‘세대 간 정의’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률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들은 어차피 곧 죽게 될 많은 노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의 노인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봉쇄하면서도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왜 봉쇄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교회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백신의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변화된 세계를 의미한다. 아래와 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그 변화가 갖는 함의에 대해 나눠보고자 한다.

기독교 사역

기독교 사역은 대부분 형태가 축소될 것이다. 대규모 모임이나 행사는 물론이며 대면 예배도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복음주의적 교회의

풍경은 또 다른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먼 거리 아웃리치를 포함한 주요 모임과 집회를 더이상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양식이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놀라워했으며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신앙의 대부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기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공회나 카톨릭과 같은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의 교회 내 기득권층은 시대적인 이 기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ZOOM과 같은 매체를 통한 온라인 예배나 전도활동, 제자 훈련의 횟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의 문을 통과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매체가 미래에 예배와 전도를 위한 영속적인 사역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항공여행

저가 항공여행으로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해외 여행에 대해 조심스러워할 것이며 자가격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점차 불투명해 보인다. 항공 여행이 감소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높아진 항공 요금은 출장이나 저가항공으로 휴가를 떠나던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던 나라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특히 관광산업이 주 수입원이었던 섬나라의 경우는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사무실과 재택근무

사람들과 접촉은 점차 비대면 방식으로 되어갈 것이다. 일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달리 통근이 줄어들 것이며 도심에 있는 사무실은 상가나 아파트로 전환이되고, 남아있는 사무실도 새로운 기능을 가진 도면으로 재설계될 것이다. 두바이와 싱가풀, 그리고 심지어 뉴욕과 런던과 같이 성장했던 글로벌 허브도 쇠퇴할 것이다.

중국

중국이 이번에 전염병을 처리한 방식은 전 세계에 공분을 샀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고립된 중국은 소수민족을 민감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더욱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국가들은 외부 공급망을 줄이거나 전략적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는 건강 분야와 같은 주요 부문을 정하고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취약성에 대한 대처

세계는 경기 침체나 기술 변화와 같이 일어날 확률은 높아지지만 영향력이 적은 사건이 아닌 전염병이나 치명적인 기후변화와 같이 발생될 확률은 적지만 영향력이 큰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We need to begin thinking of the changed world in some important aspects. Christian leaders should seriously think about how they can embrace the changed world through these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ch has not been known for some time.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 변화된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크리스천 리더들은 한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중요한 특징들을 통해 변화된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인간 진보의 필요성

영원한 발전을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던 물질적 가치와 생명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충격은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예배 참석과 기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예배 참여와 기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업에 대한 재평가

지금까지 서비스직은 저임금을 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저평이 되었다. 우리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에 기여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

서양이라는 상표 이미지

서양에 대한 이미지는 미국이나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잘못 대처한 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추락하게 될까? 이것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회 응집력

많은 국가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지역 사회 내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났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앞장서 이 일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급증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 변화들이 기독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팬데믹 초기에 유럽에서 쓴 것으로 서구적인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글이기도 하다. 앞의 질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될 때 전 세계의 리더십들에게도 시간과 형태는 다르지만 유사하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 변화된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크리스천 리더들은 한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중요한 특징들을 통해 변화된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크리스천 리더들은 스스로를 위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특징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실제적인 이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only way to experience recovery and gratefulness is to go to God the Father

진정한 회복과 감사를 경험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장쏘나 선교사 / 인도



지난 한 달, 짧을 수도 혹은 길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우리 부부에게 의미 있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5년 전 첫 번째 본국사역(안식년)을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다시 들어갔던 인도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부부 간의 갈등, 장/단기 사역자들과의 갈등으로 지치고 힘든 적이 많았다. 첫 텀(Term) 때는 좌충우돌하며 내 열정으로 달려갔던 시간이라면, 두 번째 텀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돌파를 경험했지만 상처와 부상의 흔적도 남은 시간이었다. 본국에 돌아와서 H2K(Home to Kingdom)¹⁾와 TRT(TIM Re-Building Training)²⁾훈련을 받으며 들었던 생각은 이곳은 마치 요양원에서 케어를 받는 것처럼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었다. 훈련을 받으며 느꼈던 감사한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시안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시안홀이 나에게는 골방과 같은 장소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껏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나 주셨고 치료해 주셨다. 그동안 내 안에 꾹꾹 눌러 참아왔던 힘든 감정들, 물음들이 터져 나오는 시간들을 보냈다. 나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과 분한 마음, 억울한 감정이 견드려질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며, 또한 내 안의 악한 태도, 불신, 이기심 등의 죄를 처절하리만큼 아프게 들춰 내시며 회개 기도하게 하셨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TRT는 지난 사역의 시간과 삶에 대해 객관적으로 디브리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좋은 강의, 성경적 세계관, 선교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훈련을 하며 인도에서 지내는 동안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넓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치우쳐 있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인도에서 추방된 남편은 네팔에서 살고, 나는 인도에서 따로 살면서 추방의 상처로 남편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온라인 사역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사역을 적용하게 된 것이지만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 쉽게 피곤해지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사역의 장점도 보게 되고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남편과 얘기를 나누곤 했다. 다음세대들은 화상의 대화가 익숙하고 생활의 일부분인 만큼 나 역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인도에 있는 아이들과 가끔씩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좋은 사역 도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느 상황이든 닫힌 마음이 아니라 배우려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네 번째 감사한 것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선교사님들과의 교제였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만이 알 수 있는 그것들을 서로 어루만지는 시간이었다. 또 총무님의 섬김, 담당하신 은주 간사님의 친절한 미소까지. TIM 간사님들의 순수함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감사했다. 소중한 만남 속에서 함께 웃고 울 수 있었던 귀한 동지들이었다. 열방 곳곳에서 흘어져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기회가 되어 함께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보듬어주며 치료해 주는 귀한 친구들로 만나게 됨에 감사하다.

다섯 번째 감사한 것은,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인도에 있을 때는 사역에만 집중하느라 서로를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시간을 통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1순위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삶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회복을 경험할수록 남편에 대한 소중함과 일상에서의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본다. 나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 부부 둘 다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변함없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데 한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1) H2K (Home to Kingdom) :

한 텁(5년)이상 사역을 하고, 1기 본국사역 훈련(H2H : Home to Home)을 마치고 두 번째 텁(10년 이상)의 본국사역(안식년)을 진행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온누리교회 선교사 재훈련 프로그램

2) TRT (TIM Re-Builder Training) :

본국사역(안식년)으로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전기 사역을 돌이켜보고 차기사역을 준비하며 TIM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단기 훈련 프로그램



Through reliable media, let's be witnesses of the Gospel shining a light on the souls

진정성이 있는 미디어로 영혼을 밝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

황경훈 간사 / 기획동원팀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코로나19와 함께 사역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 한가지는 온라인 사역이다. 한때 신앙생활과 경건의 삶을 위해 미디어 금식을 이야기하던 우리가 이젠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사역에 집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말하던 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때 이 온라인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이 길(온라인 사역)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돌파해야 할 영역이기에 TIM은 믿음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미디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이 찾으시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밝혀줄 수 있는 빛(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마 6:22)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다. 몸은 국내에 있지만 마음은 현장에 있기에 그들(영혼)을 위해 TIM본부와 선교사님들은 미디어 사역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ZOOM을 통해 화상미팅을 진행하고, 설교, 강의, 교육 컨텐츠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기 시작했다. 또한 본부에서는 TRT(Tim Re-builder Training)과정 중에 영상편집&유튜브, CLOUD기반 업무진행에 대한 강의를 시작함으로서 이젠 모두가 미디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선교사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각 현장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TIM본부 또한 “두란노해외선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며 새로운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오픈 되어있는 영상으로는 TIM본부장님의 특강, TIM_ISSUE(코로나19_긴급구호, 선교하는 몽골, etc), TIMer's_today(TIM 선교사님들이 직접 전해주는 선교 상황), TIM Family_Issue(유튜브 채널이 있으신 선교사님 영상 공유) 등이 있다. 선교 보안상 일부만 공개되는 부분도 있으며, 그 외 TIMer's_Vlog 컨텐츠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채널을 준비 중에 있다. 나아가 기존에 대면으로 해오던 선교 동원(홍보), 훈련, 캐어 부분도 비대면 사역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나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접속하여 “두란노해외선교회”를 검색한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흔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 낼 수 있으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 4:12)

앞으로 미디어 사역 쪽은 전문성을 갖춰진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닌 모든 선교사님 또는 사역자들에게 일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다양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이 제공되고 손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조금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젠 미디어 사역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미디어를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 필자는 특히 선교사들에게 이 사역이 일상화가 되길 바란다. 그 이유는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게 주신 열방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며 그 복을 그 당사자가 흘려보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있는 미디어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다.

Don't be afraid of challenges!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하지 않는 “복음”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고,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함이다. TIM이 하나님 중심(복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된 중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Make the best use of media platforms to create a beautiful partnership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 위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자

김미림 간사 / 지역 1팀



올해부터 본부 사역 TRT(TIM Re-BUILDER Training)에서는 유튜브 영상 강의와 클라우드(Cloud), 보안 강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에 대해 나누게 되었다. 현장 전문가인 선교사님들과 현장에 맞는 미디어가 무엇인지, 본부와 현장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의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한다. 첫째는 근무 방식의 변화이다. 본부에서도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면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 처리를 위해 Google Meet를 활용한 지역별/주제별/RC 회의 등을 시행했다. 구글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물리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외부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SNS 사용량도 급증했다. 45개국 25만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소셜미디어에 평균 사용시간이 많은 나라는 1위가 필리핀으로 SNS 계정 평균 보유 개수 8.6개, 일 평균 사용시간은 4시간이었다. 2위는 브라질, 3위는 콜롬비아, 4위는 나이지리아, 5위는 아르헨티나였다.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10대와 20대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평균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교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를 활용한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업과 소통을 위한 공동 작업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80~90년 초반생)와 Z세대(90년대 후반~2000년생)와 대면 소통과 조직의 시스템에 안정감을 느끼는 베이비부머 세대(50년~60년생 초반)와 X세대들(60년대 후반~70년생)이 선호하는 협업 툴은 무엇일까? 이는 화상 온라인 회의와 기업용 SNS, 기록이 보존되는 채팅, 팀 공동 작업 공간과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업 툴의 활용 목적은 내부/외부 커뮤니케이션과의 꾸준한 협업에 있다. 각계 기업에서도 채팅과 화상회의, 파일 공유, 공동 작업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코로나 19 이후의 온라인 협업은 ‘화상 회의’와 ‘클라우드’, ‘공동 작업’을 지향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한 언컨택트를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함께 가야 할 세대로 오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현장과 본부가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적절한 시간 분배를 통한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을 하는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빙이란 지속적으로 보전할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인데 각종 문서와 사진, 음악 등의 파일과 정보를 웹 상에 저장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밀레니얼, Z세대)와 함께 해 나갈 협업은 무엇이며 단순히 이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어떤 전략으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한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 또한 이 질문 앞에 아직은 망설여지지만 현장과 본부가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디어 선교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해본다.

We need to wrestle with ideas on how to partner, what strategies to employ, and which platforms to use to deliver the Gospel message to the next generation (millennials, Z generation), not neglecting the contemporary world.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밀레니얼, Z세대)와 함께 해 나갈 협업은 무엇이며 단순히 이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어떤 전략으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한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Gospel to all peoples! Churches to all tribes!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 America)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E-mail tima061204@gmail.com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537-0024 Osaka, Higashinari-ku,
Higashioibase, 3-chōme-9-11
E- Builder Building 3F
Tel +81-6-7220-9927